

#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11월 1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48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큰 슬픔을 극복하도록  
위로와 힘을 주시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보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김 화 정 -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저 역시 3년 반 동안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합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교회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노방전도를 할 수 없는 날이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의 설교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변함없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거듭 반복하여 들으면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굳센 믿음을 갖게 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남편은 2015년 12월 31일에 ‘골수섬유증’이라는 희귀성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8년 동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는 한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회사일로 바쁘다며 간신히 주일성수만 했던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성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수집사 직분과 남성구역장 직분을 받고 남성봉사연합회에 소속하여 즐겁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골수이식을 받고 차츰 회복될 때에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급성 폐렴으로 인해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면회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하루하루가 저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잠깐씩 면회가 허락된 시간에 저는 남편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의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했던 일은, 당회장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남편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남편은 그 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충만한 때에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파서 고통하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고, 늘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도와주

세요.” 갑작스러운 남편과의 이별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변함없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요일부 베다니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신령한 즐거움과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고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을 잘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남편이 투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시댁의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힘껏 전도하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느새 나이 여든이 넘으신 시어머님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시고 결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했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천국소망으로 충만하여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가친척과 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디모데전서 2:4)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저의 다양한 기도에도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 전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홀로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과 심신이 연약하여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불신 영혼에 대한 연민과 구령을 위한 열정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긴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생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분들과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소식을 접하면 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시가 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디모데후서 4:2)는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실까’라는 기대감과 설렘을 안고 밖으로 나가 전도하였습니다.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절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복음지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하지는 못해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전도대상자를 만나면 뿔뿔이 기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보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알기에 당장 확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무더위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교구 전도사님이 이온음료를 들고 뛰어오셔서 격려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 심방을 하는 날이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게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한과 숫자를 정해서 전도를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한 주에 한 분을 꼭 전도하여 주일에 교회로 모시고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도가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전도하게 해주신 두 분 수구역장님과 시간을 정하여 같이 심방을 다니면서 전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 다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협력하면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교구에서 저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신실한 분들을 만나 함께 전도와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12)

한 번은 주일에 교회에 꼭 나오시기로 약속했던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교회에 갈 수 없어 죄송하다며 예배 시간 직전에 전화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주간에 계획했던 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곧바로 교회 밖으로 나가 오후 4시가 넘을 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불신자를 찾아서 전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발걸음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찾아가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을 만나 교회로 인도하였고, 2주 후에는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을 전도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알곡신자로 변모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와 올해 침례식에서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침례식이 미루어졌을 때, 전도사님이 앞으로 새로운 신자가 되어 침례를 받을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저희 세 사람에게 50명의 목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전도한 분들, 물세례를 받아야 할 분들의 명단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적은 다음 전도사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차량으로 봉사할 때도 저희는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고 저희는 무한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것처럼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지난해에는 51명, 올해는 53명이 물세례를 받아 저희가 세운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때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넘어지지 않게 손을 꼭 잡아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번 구역장 세미나에서 두 분 수구역장님과 함께 전도특별상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20)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사모하면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라나타!”



구역공과

제3권 (5단원 : 보혜사 성령)

(제24과) 성경에 계시된 성령님

- 본문 : 요한복음 14:16-24
- 요절 :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 찬송 : 178장(새찬송가 197장), 179장(새찬송가 185장)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를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타나시우스 신조(A.D. 420-450)에는 “삼위(三位)로서 일체(一體)이시고, 일체 가운데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의 말로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으므로 교회는 사도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 교리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교회사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으로 생각하여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던 아나니아가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의 땅을 팔아 그 일부를 감추고 남은 돈을 땅값의 전부라고 하며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책망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행 5:3~4) 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네가 성령을 속였다’ 하였고 곧 이어서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함으로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은 성령님을 지칭하여 ‘영원하신 성령’(히 9:14)이라고 하여 성령님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증거하며, 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 14:26),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전 2:10)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전지하심을 증거합니다.

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시 139:7)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무소 부재하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욥 26:13),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욥 33:4)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성부, 성자와 함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해 줍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고유한 속성을 갖고 계신 것을 보아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2.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뿐이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 하셨을 때 그들은 ‘참람되다’ 하며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참람된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마 28:19)고 하심으로 성령이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며, 성부께서 계시는 것같이, 성자도 그러하시며,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보여 달라’는 빌립의 요청을 받으시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8)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심을 보여 줍니다. 또 성경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롬 8:14) 또는 ‘그리스도의 영’(롬 8:9)으로 호칭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성령께서 성부, 성자와 함께 하나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3. 성령님은 성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대체로 구약시대를 성부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시대를 성자 시대, 그리고 오순절 이후의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성경은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하였고, 계속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 14:20, 23)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는데, 이는 성부와 성자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성도로 만드신 성령님은 지금도 성도 안에 계셔서 인격적으로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성도의 성화를 도우시며, 장차 우리의 썩을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며,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인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